

중화민국기 중국인은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천홍민 (저장대)

원문 중국어, 번역 : 홍용일

현대적 의미의 ‘군벌’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래되었다. 장제스는 주로 이 개념을 사용하여 중국내 각 파벌 군사 지도자들의 행패와 정치 교란을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후로는 ‘일본 군벌’이라는 표현을 통해 침략을 감행한 일본 군부를 지칭하기도 했다.

장제스는 ‘일본 군벌’을 일본 국민과 대립적인 존재로 구분지었는데, 이는 ‘일본 군벌’의 개념을 강조했던 그의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일본 군벌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안팎으로 제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항일을 견지하고 일본 군벌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장은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장제스가 ‘일본 군벌’ 개념을 제안하고 강조했던 기반이었다. 또 ‘끝까지 항전을 견지’한다는 이념을 지탱했던 이론적 기초이기도 했다. ‘일본 군벌’개념은 장제스의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에도 사용되었는데, 그는 ‘일본 군벌과 국민의 이분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일본내 각 계층의 분화와 국민의 각성을 통해 군벌이 전복되기를 염원했다. 국제 사회를 향한 원조 요청과 전시 선전 영역에서도 장제스는 ‘군벌’ 개념을 사용해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한 각국의 비판 여론과 중국의 항전에 대한 동정 및 지원을 획득하고자 했다.

이렇게 장제스는 중국 침략을 주장하는 일본 군부를 ‘군벌’로 정의하면서 대일 선전 영역에서도 국내에서 반 ‘군벌’기치를 통해 획득했던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 군부 세력은 장제스의 기대만큼 빠르게 붕괴되지 않았다. 일본 국민 또한 그가 이해했던바와 같이 모두가 군부의 반대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장제스의 선전에 호응하여 자발적인 반(反) ‘군벌’ 혁명도 일으키지 않았다.

■ 천홍민 (陳紅民/CHEN, Hongmin)

산둥 타이안 출신. 역사학 박사(난징대학 중국근현대사 전공). 저장대학 구시(求是)초빙교수, 장제스와 근대중국연구센터 센터장, 박사과정생 지도교수. 저장(省江)성 역사학회 부회장.

1985~2006 년, 난징대학 역사학과(조교수, 강사, 부교수, 교수)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난징대학 중화민국사연구센터 부센터장 역임.

2006~현재, 저장대학 역사학부 역사학과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역사학과 주임, 중국근현대사연구소 소장을 역임. 주로 중화민국사, 장제스, 근대 중국의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옌칭 도서관 소장 장팅푸(蔣廷黻)자료” 등 30 권

이상의 학술 저서를 출판 하고 15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 수 차례 성부급(省部級) 연구 성과 선정. 미국, 영국, 이탈리아, 호주, 일본, 한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에서 활발하게 학술 교류 진행.

주요 저서: '대만 시대 장제스와 천칭의 관계 탐색', "근대사 연구", 2013년 제2호. '정치 판단과 선택: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항전 승리 전후', "마카오 이공학보(인문사회과학판)", 2015년 제4호. '향도'(向導) 후보와 중공 초기의 국민당 좌파 및 우파 개념 구축'(후신이와의 공저), "학계", 2022년 제4호.